



한-콜롬비아 농업기술 협력 방안 논의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8일 서울에서 '한-중남미 디지털 포럼' 참석차 방한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로돌포 엔리케 씨와 나바로 장관은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성과를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콜파시 역할 강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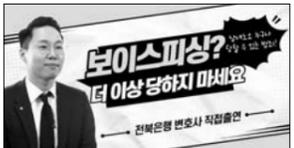
농식품 영양성분 데이터 분야 최초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학계·산업계 등에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식품 영양성분 데이터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은 1970년부터 식품 원료와 음식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고, 5년 단위로 개정해 왔다. 2019년부터는 온라인(농식품음료, koreanfood.rda.go.kr)을 통해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9.2에는 식품 3,088종 등 총 20만7,041건의 식품 성

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품 성분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영양 관련 정책, 교육부의 학생급식 계획,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정책 등 식품 영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 국민의 식생활 관리, 산업체의 식품 개발, 포털사이트의 식품 영양정보 제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식품 영양성분의 국가표준데이터를 수집·생산하고 국민에게 이를 보급·확산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됐다. 데이터가 생산되면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꾸준히 유지, 갱신하며,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는 관련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과 관련해 18일, 본원 농식품자원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질량별 식품 영양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주)유티인프라의 박동국 대표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이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식품 성분 정보를 늘려 최신의 상태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유튜브 채널서 보이스피싱 대처법 안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 중 ▲정부·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유도형 대출빙자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자녀납치 협박 및 사교빙자 유형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에 대해 각각의 상황별 대처방안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각 상황별 보이스피싱범들의 실제 음성을 들려주며 대응방법을 안내해 실제 범행수법을 미리 체험하게 했으며, 피해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 출연해 각 상황별 예방법에 대해 안내한 전북은행 신속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이 점점 정교화 되고 대응해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작년 한해 전북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1.7건 발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으므로,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은행의 지급정지를 이용하거나 의심스러운 송금 요청 시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도내 4개사 제품 우수품 지정

진우에스엠씨 360도 회전 탐승함 적용 소형인명구조용 소방차 등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도내 업체 (주)진우에스엠씨 외 3개사 제품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41개사(51개 제품)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익산 소재 (주)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의 '360° 회전 탐승함을 적용한 직진복식 소형인명구조용 소방차'는 텔레스코픽 붐대를 이용한 소형사다리차로, 기동성과 구조효율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군산 소재 (주)디앤에프(대표 김용태)의 '론크리트 누설 방지형 단열 데크플레이트'는 단열재 일체형으로 단열재 설치 인력, 고소작업 등이 필요없이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킨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군산 소재 해진산업 주식회사(대표 김형식)의 '텔레스코픽 가이드가 부착된 하단인양 수

경진원, 올 전북천년명가 육성 참여업체 모집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가 오랫동안 한 길 경영을 하며 기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해 적극 육성하고자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지원금, 홍보와 마케팅, 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경영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도박·행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

낙농가 축산환경 개선·소득 기여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품목축협'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이안기)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 품목축협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상호금융대상평가 우수상, 생명보험부문 업적평가 3위, 신용카드부문 업적평가 3위 등 각 사업부문별 평가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젖소 육성 전문목장을 운영해 조합원의 젖소 손아지를 14개월까지 사육 후 낙농가에 분양해 농가가 젖소 착유소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낙농가들이 가족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자 가족분뇨 처리를 위한 가족분뇨비공장을 운영해 연간 1만5,000톤의 분뇨를 수거해 축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안기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들께서 우리 조합을 믿고 함께해주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조합원의 복지향상, 건전한 신용사업 증대 등 조합원과 함께하는 품목축협을 만들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연중 무휴로 낙농가를 위한 '낙농헬퍼'를 운영 중이며, 조합원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후계낙농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

희망기업 모집... 올 11억 투입

전북도가 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관로 개척, 신규고객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8억원(2021년 11억원)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7건),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8건), ▲신시장창출 지원(5건),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애로해소 지원(20건) 등이다.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는 시제품/시형 개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분야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지원'에서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계약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거래선 확보에도 힘을 보태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응모한 기업들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확대

업종·대상에 맞춰 교육내용 세분화 온라인 실시간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상시교육과정으로 등록·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후에 교육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강의를 신규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세분화 및 기존 교육 채널을 두배 이상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향후 중소기업부는 마포 드림스퀘어 외에 지역 소재 디지털 교육장 등으로 실시간 교육 송출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유명인 등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참여 교육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실시간 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의 상세 교육과정과 일정 등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지난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연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희망하는 교육이 있다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로운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 이미지 공개

현대차, 세계 최초로

현대차의 새로운 MPV(다목적 차량, Multi-Purpose Vehicle), 프리미엄 크루저(Cruiser) '스타리아'의 내·외장 이미지가 18일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이 반영된 차량이다. 인사이드 아웃은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스타리아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의 외관과 넓은 실내공간 및 개방감을 갖췄다. 스타리아는 일반모델과 고급모델 '스타리아 라운지'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모델은 투어(9/11인승), 카고(3/5인승) 등 보다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며 스타리아 라운지는 7/9인승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사전 계약을 25일부터 실시해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 국민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5년 6월 전북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도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글로벌유통물류협동조합 회장(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을)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해 국민연금공단과 업계의 고충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실익증대 신소득작물 발굴

농협 남원시지부 업무협의회 개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16일 관내 농·축협 경제사업 책임자들과 지역농업인의 중·장기적 실익증대를 위한 신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북농협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을 위한 포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협의에서는 현장 직원들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가감없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17일 권오정 지부장은 아영면의 사인머스켓 공선 출하회 행사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농가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권오정 지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농협'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